

#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the youth labour market

▮ Noeike, C.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5), pp.1-15 (online article).

본 연구는 서유럽에서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가 청년실업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호법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직업보장조항이며, 다른 하나는 임시계약에 대한 규제이다. 직업보장조항을 탈규제하는 것은 청년 실업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임시 계약의 탈규제의 영향은 모호하지만 직업보호조항의 엄격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대한 리뷰와 이전 연구에 대한 반복실험은, 고용 보호법제와 높은 청년 실업률을 연결시키는 많은 이전의 증거들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1980~2008년까지 서유럽의 16개국과 미국의 총량자료를 사용하여 fixed effects and

differences-differences estim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보호조항은 분석모델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임시 계약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청년 실업을 증가시키거나 청년 고용률을 낮춘다는 어떠한 합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반면, 직업보호조항의 높은 수준의 상황에서 임시 계약을 탈규제화하는 것은 청년 실업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청년 고용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임시 계약의 탈규제화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들과 일치한다. 이전 연구들은 임시직 직업의 고용 경력에 대한 불안정화 영향과 청년에 대한 직업 성장을 결과시키는 탈규제화의 실패를 강조하였다.

## The between and within effects of social security on church attendance in Europe 1980-1998: The danger of testing hypotheses cross-nationality

▮ te Grotenhuis, M., Scholte, M., de Graaf, N. D., Pelzer, B.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5), pp.643-654.

교회 출석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설들에 대한 테스트들은 대부분 많은 나라들을 포괄하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서베이 자료들은 각 나라들에 대한 겨우 제한된 인원들만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요한 연구의 초점은 국가 간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으며, 국가 내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자가 더 설득력 있는 테스트를 구성하는데, 그 이유는 관찰되지 않는 국가 특이적인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석적 모델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본 연구는 국가 간 연구 설계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이 부정확한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Mannheim Eurobarometer Trend File을 선택하였다. 이 자료는 가능한 많은 나라들과 가능한 많은 시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단계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과 교회 출석의 상관관계의 잘 알려진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분해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상관관계가 거의 특정화되지 않은 국가 특성 때문인 것을 보여주며, 국가 안에서 사회보장은 때때로 교회 출석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때때로는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반면 전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영향이 없음을 보인다.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보다는, 총 국내생산의 증가가 교회 출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연구 설계의 사용에 대한 본 연구의 경고는 다른 영역의 연구들에도 또한 함의를 가진다.

**How has educational expansion shaped social mobility trends in United States?**

■ Pfeffer, F. T., Hertel, F. R. *Social Forces*, 94(1), pp.143-180.

본 논문은 20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의 세대 간 사회 이동 추세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이 추세에 대한 결정요인을 평가한다. 특히, 우리는 교육의 확대가 코호트에 따른 남성의 이동 기회의 관찰된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최근에 개발된 분배 방법론을 사용하여, 본 논문은 교육 참여율이 이동 추세를 형성하는 복수의 채널들의 각각의 기여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본 논문은 사회 계층 이동의 작지만 점진적인 증가가 거의 전적으로, 구성적 영향이라고 알려진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구성적 영향에 따라, 사회 계층 결정에 대한 사회 계층 배경의 직접적 영향은 높은 수준의 교육에 참여하는 증가하는 개인들에서 낮게 나타났다. 구성적 영향의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은 또한, 교육의 분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계층 이익이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지 않는 반면, 교육의 계층 불평등이 안정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또한, 사회 계층 이동성의 증가를 미국의 더 많은 유연성으로의 일반적인 추세로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 이들의 교육과 계층 성취에 대한 부모의 교육의 영향은 각각 증가하였고 안정적으로 남아 있었다.

여기에서, 부모의 교육과 이들의 계층 성취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관련된 구성적 영향은, 부모의 교육과 연결된 교육 성취의 불평등 증가의 장기적 추세를 상쇄한다.

**Housing policy and urban inequality: Did the transformation of assisted housing reduce poverty concentration?**

■ Owens, A. *Social Forces*, 94(1), pp.345-348.

빈곤의 집중은 미국에서 지역들 간의 장기간의 불평등을 반영한다. 빈곤의 집중이 정책입안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택보조정책이 철저히 점검되었다. 1970년대 이후로 도입된 새로운 주택보조정책은 주택보조단위의 지리학적 집중을 급격하게 감소시켰으며, 많은 저소득 거주자들의 주거위치를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에 대한 이와 같은 개입은 빈곤의 집중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하였는가?

전국적인 종적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는 1977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택보조의 탈집중화는 100개의 가장 큰 대도시 지역들에서 빈곤의 집중을 겨우 조금만 감소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주로 2000년 이후로 주택보조의 탈집중화에 의해서 도출되었다. 이때에는, 정책들이 빈곤 수준이 낮은 지역들에 대한 주택보조의 분산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정책의 상당한 이동도 이미 존재하는 이중화된 도시 불평등의 상황에서, 빈곤을 탈집중화 하는데 있어 큰 조류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택보조정책은

지역들에 가난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많은 다른 구조적인 힘들과 함께 존재하며, 이 요인들은 빈곤의 집중을 줄이는 주택보조정책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주거 프로그램들은 주택보조 단위의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민간시장에 의존하여, 오래 지속되는 장소 계층은 주택보조가 위치되는 지역과 주택을 보조받지 않는 사람들의 주거 선택(빈곤의 탈집중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When search takes effort and money**

■ Schwartz, J. *Labour Economics*, 36, pp.1-17, 2015.

일자리 탐색에는 금전적인 비용이 소모된다. 일자리 탐색과 관련된 활동들 중 몇 개만 예로 들자면, 가능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실업보험 급여의 최적수준에 대해 탐색해 온 기존 연구들은, 일자리 탐색과 관련된 활동들을 레저 시간의 감소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는 즐겁지 않은 일로 모델화해왔으며, 일자리 탐색과 관련된 금전적 비용에 대해서는 무시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탐색이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낮은 실업보험 급여는 성공적인 일자리 탐색의 확률을 낮출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일자리 탐색에 있어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높은 실업보험 급여가 더 최적의 수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일자리 탐색이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제에서, 실업보험 급여의 최적 구조에 대해 탐색한다. 수많은 실험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규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급여가 일자리 탐색에 돈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합의하는 것보다 더 높아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높은 실업보험 급여는 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반대로, 근로자들이 저축할 수 있을 때, 장기 실업자에게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저축을 모두 소비하였을 때에도 일자리 탐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Immigrants, domestic labour and women's retirement decisions**

■ Peri, G., Romiti, A., Rossi, M. *Labour Economics*, 36, pp.18-34, 2015.

본 논문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내국인의 은퇴와 근로 결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정한다. 본 논문은 이민자 노동력의 공급이, 특히 고령자에 대한 돌봄 영역에서

의 여성의 가구 서비스를 대체함을 통해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2000-2008년의 이탈리아 가구에 대한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계획된 은퇴 연령, 노동공급, 가구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double-difference identification approach를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고령 부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지역노동시장에 이민자들의 공급여부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 인구에서 이민자들의 1%의 증가는 8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계획된 은퇴 연령 격차의 0.45만큼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은퇴 연령 격차는 0.1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향은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인 경우에 대하여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유입 중에서 가정 돌봄 영역에서 가장 큰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동유럽 여성 이민자들의 유입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 이 영향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